

One pick

업 앤 다운

‘올림픽 응원단장’ 자처한 방탄 RM
“윤기님 다이내마이트 잘 봤습니다”

곽윤기는 유튜브 라이브서 “영광이다” 감격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온라인 응원단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대표팀 경기 중계방송 시청을 독려하거나 경기 후에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응원해 왔다.

RM은 17일 “윤기님 다이내마이트 잘 봤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전날 밤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계주 5000m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딴 대표팀 ‘만행’ 곽윤기가 댄스 세리머니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내마이트’를 선보인 것에 대한 화답이다.

RM은 또 “우리 윤기 형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그룹 멤버 슈가의 사진도 올렸다. 슈가의 본명이 민윤기라는 걸 떠올려 곽윤기와 연관짓는 재미였다.

이에 곽윤기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감사함을 전했다. 팬들이 RM의 SNS 이야기를 전하자 곽윤기는 휴대전화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며 “진짜로? 미쳤다”고 반응하며 감격해했다. 이어 “BTS님께서 내 ‘다이내마이트’를 봐주시다니 영광”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기했다.

곽윤기는 실제로 평소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로 알려졌다. 그는 시상식 직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올림픽 초반 팬과 판정 등으로 많이 힘들었다. RM의 위로를 받고 보답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RM은 쇼트트랙 여자 계주 3000m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아랑을 비롯해 최민정·이유빈·서휘민이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면서 “멋”이라는 단어로 응원하기도 했다. 또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찬은 판정으로 실격 당한 황대현의 경기 영상과 함께 박수와 엄지손가락 모양의 이모티콘을 올렸다. 이로 인해 RM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구토’ 이모티콘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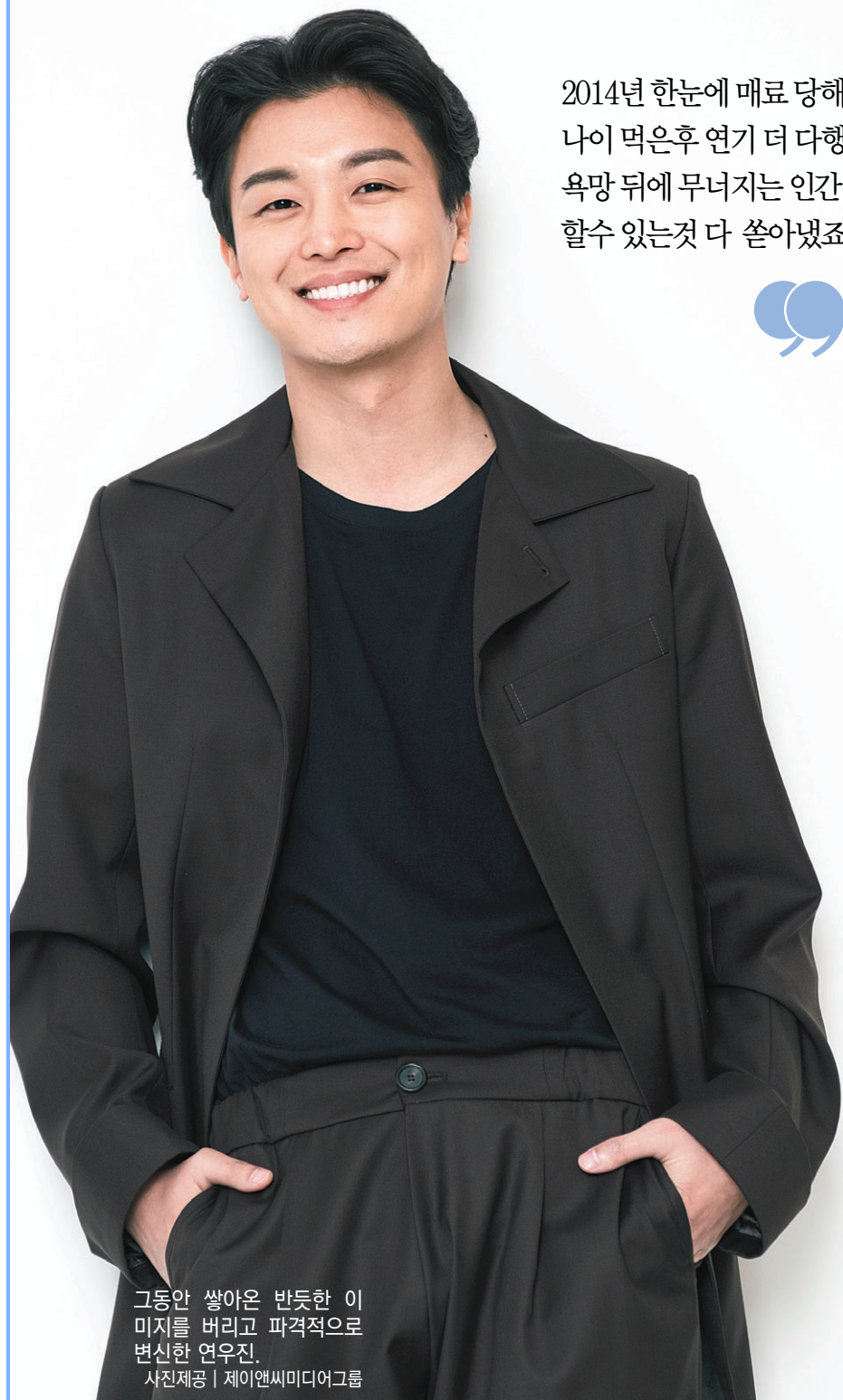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윤기님 다이내마이트 잘 봤습니다

밀크남 이미지 깨고 19금 파격 변신...‘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연우진

“농치기 싫은 작품...촬영 6년간 기다렸죠”



2014년 한눈에 매료 당해 나이 먹은후 연기 더 다행 욕망 뒤에 무너지는 인간 할수 있는것 다 쏟아냈죠



그동안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를 버리고 파격적으로 변신한 연우진. 사진제공 | 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원 없이 쏟아낸 작품이죠.”

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를 비롯해 ‘7일의 왕비’, ‘연애 말고 결혼’ 등에 이어 최근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서른, 아홉’까지. 여성들이 꿈꾸는 완벽한 로맨틱한 남자로서 시청자를 만나왔다. 부드럽고 달콤한 이미지의 ‘밀크남’으로 불렸다. 배우 연우진(김봉화·39)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밀크남’은 없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제작 표범영화사)를 무대 삼아 금지된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약한 인간이 됐다. 극중 북한군 사단장의 젊은 아내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가는 취사병 무광이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출세만을 꿈꿨던 무광은 사단장이 출장을 간 사이 자신을 유혹해 오는 사단장의 여자 수련(지안)으로 인해 가없이 흔들린다.

●“6년의 기다림, 오히려 적기”

연우진은 2014년 영화의 시놉시스를 받고 출연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첫 촬영에 나섰다. “연출자 장철수 감독이라는 꽃의 꿀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와 배급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

“다른 배우가 제 대신 하게 된다면 배가 아플 것 같았어요. 안정적이고 상업적인 걸 고려했다면 진작 포기했겠지만, 도전과 혁신적인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투 속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과 “욕망에 잠식돼 파국으로 치닫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진 후 온전히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연기할 수 있어 더욱 다행이라 여겼다.

“오히려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6년의 시간 속에서 가장 달라진 게 발성인데 지금이 더 잘 맞았죠. 제 자신에게도 더 솔직해질 수 있었고, 덕분에 더 ‘날 것’의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태적 베드신 뒤에는...”

육체적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이니만큼 수위 높은 베드신은 필연적이었다. 다만 “그 뒤 인물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게 최우선이었다.

“다른 영화 속 베드신과 다르죠. 짐승처럼 적나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변태적이예요. 하지만 쾌락의 끝 뒤에 남는 공허함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 상대역 지안에 게도 최대한 배려했다. “촬영으로 인해 누구라도 상처를 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렇기에 촬영 전날 지안은 물론 장철수 감독, 촬영감독 등과 만나 회의하고 또 회의했다.

개봉 전부터 노출 장면과 베드신으로만 주목받는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영화의 여운”이 깊고 클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영화에 없었던 개성과 특수성을 담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이라는 나약한 본성에 무너지는 인간에게 이 데올로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죠.”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손나은·보나·이준영 ‘연기돌’ 명예회복 도전

손나은 ‘고스트...’서 로맨스 열연
보나 ‘스물다섯 스물하나’로 화제
이준영 ‘모럴센스’서 연기력 증명

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 우주소녀 보나, 유키스 이준영이 ‘연기돌’(연기자로 활동하는 아이돌) 명예회복에 나섰다. 안방극장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누비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주연인 블랙핑크 지수, 디즈니+ ‘너와 나의 경찰수업’의 강다니엘 등 일

부 아이돌 스타들이 낮은 시청률과 화제성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뒤여서 이들의 활약에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손나은은 tvN 드라마 ‘고스트 닥터’에서 응급실 인턴으로 등장한다. 흥부와 레지던트인 김범과 티격태격하며 러브라인을 이룬다. 베데랑 의사 정지훈이 김범의 몸에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못지않게 흥미로운 로맨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2012년 JTBC ‘무자식 상팔자’ 이후 2018년 공포영화 ‘여곡성’ 등 다양한 무대에 도전해 연기자로서 입지를 넓혀왔다.



손나은

보나

이준영

연기에 대한 의지도 강해 지난해 차승원과 최지우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로 옮겨 연기자 행보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보나는 12일 방송을 시작한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로 화제에 올랐다. 극중 펜싱 천재인 고유림 역으로, 주인공 김태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안방극

장에서는 아직 낯선 얼굴이지만 시청자 사이에서는 ‘신인배우인 줄 알고 찾아봤다’는 호기심 어린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KBS 2TV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 등을 거치며 경력 쌓기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tvN ‘부암동 복수자들’ 이후 쉬지 않고 작품을 내왔던 이준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럴센스’로 새삼 시선을 끈다. 가학적 성적 취향을 지닌 직장인 캐릭터를 천연덕스럽게 연기해 호평받고 있다. 덕분에 영화는 17일 넷플릭스 ‘많이 본 영화’ 세계 6위(필리핀·스페인)에까지 올랐다. 이에 힘입어 다양한 드라마의 ‘러브콜’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